

‘魔의 11m’ PK의 저주

메시·호날두... 두 슈퍼스타 실축에 축구팬들 충격



FC 바르셀로나
리오넬 메시

최강 바르샤·레알 UEFA 챔스 동반 탈락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최고 라이벌 구단인 레알 마드리드와 FC바르셀로나. 두 팀은 결정적인 순간에 대표 선수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7)와 리오넬 메시(25)의 어이없는 플레이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서 고배를 들었다. 레알 마드리드는 26일(이하 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과의 2011-2012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에서 승부차기 전적 1-3으로 2차전에 오르지 못했다. 이보다 하루 앞서 치러진 바르셀로나와 첼시의 4강 2차전에서 메시의 바르셀로나가 2-2로 비겨 함께 2-3 전적으로 결승 문턱에서 미끄러졌다. 호날두와 메시는 다른 길을 걷는 것 같았다. 지난 22일 프리메라리가에서의 맞대결인 엘 클라시코에서 골을 터뜨리지 못한 메시와 달리 호날두는 결승골을 뽑아내 팀의 승리와 함께 리그 우승을 사실상 확정 지었기 때문이다.

두 스타의 희비 곡선은 25일 열린 바르셀로나의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에서 확인해지지는 못했다. 1차전에서 첼시에 0-1로 져 2골 차이 상으로 이겨야 했던 바르셀로나는 2-1로 한 점 리드를 잡은 상황에서 천금 같은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그러나 키커로 나선 메시가 이틈감을 하지 못한 채 크로스바에 공을 때리는 실수를 해 결승 티켓을 잡을 결정적인 기회를 날렸다. 후반 38분 메시는 또다시 희심의 숫으로 자존심 회복에 나섰지만 이마지도 골대를 맞고 튀어나오는 불운에 고개를 떨어뜨렸다.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얻어맞은 바르셀로나는 결국 첼시에 무릎을 꿇어 지난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으로서의 체면을 구겼다. 반면에 바이에른 뮌헨(독일)과의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경기에 나선 호날두는 연장 접전이 벌어질 때까지 “나는 메시와는 다르다”는 것을 과시하는 듯했다. 전반 6분



호날두 “이럴수가”

레알 마드리드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왼쪽)와 곤잘로 이과인이 26일 바이에른 뮌헨과의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 승부차기에서 패하자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페널티킥으로 선취골을 뽑아내고 다시 8분 만에 추가 골까지 터뜨려 팀의 2-0 리드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장전을 뛰고도 1, 2차전 합계와 원정 골 기록으로 승부를 내지 못한 두 팀이 승부차기에 들어가면서 호날두에게도 알곳은 운명의 장난이 시작됐다. 레알 마드리드는 첫 번째 키커로 호날두를 내세워 기선제압을 노렸다. 그러나 뮌헨의 신에 알라바가 첫 골을 넣는 데 성공했지만 노련한 호날두가 골대 왼쪽 구석으로 찬

숫은 그만 상대 골키퍼 노이어의 손에 걸리고 말았다. 호날두가 전날 페널티킥을 놓친 메시처럼 중요한 기회를 날려버리자 레알 마드리드는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국 레알 마드리드는 승부차기에서 뮌헨에 1-3으로 무릎을 꿇었다. 두 스타 플레이어의 동반 침몰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엘 클라시코(레알 마드리드와 FC바르셀로나의 대결)로 치러지길 은근히 바라던 축구 팬들의 기대도 수포가 됐다. /연합뉴스

뮌헨 결승 진출 “첼시 나와라”



레알에 승부차기 승... 내달 20일 단판승부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뮌헨이 승부차기까지 가는 대접전 끝에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레알 마드리드를 제압하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했다. 뮌헨은 26일(이하 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2011-2012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에서 레알 마드리드에 1-2로 졌다. 이에 따라 1, 2차전 합계 3-3이 된

두 팀은 연장전을 벌였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결국 승부차기에 돌입한 두 팀 중 뮌헨이 3-1로 신승을 거두고 미소를 지었다. 뮌헨은 프리메라리가의 FC바르셀로나를 꺾고 결승에 먼저 오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와 내달 20일 오전 3시45분부터 홈 구장인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빅이어’를 놓고 다룬다. 전반 6분 레알 마드리드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골키퍼를 완전히 속여 골 그물 오른쪽을 흔드는 페널티

킥으로 득점의 포문을 열었다. 레알 마드리드는 전반 14분 호날두의 추가 골로 점수 차를 2-0으로 벌렸다. 이때까지 만해도 결승 진출에 한 발짝 다가선 듯했다. 그러나 뮌헨은 고메즈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로반이 키커로 나서 전반 26분 한 점을 만회했다. 지난 18일 1차전에서 경기 종료 직전 2-1을 만든 뮌헨은 이로써 1, 2차전 합계 3-3으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후반전에서는 두 팀 모두 상대의 골문을 열지 못했다. 원정에서 1골씩 기록한 뮌헨과 레알 마드리드는 연장전에 들어갔지만

연장 전후반 30분도 득점 없이 흘러 보내 승부차기에 돌입하게 됐다. 승부차기에서는 뮌헨이 레알 마드리드에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날 두 골의 주인공 호날두와 카카가 첫 번째와 두 번째 키커로 나서 차례로 실축했다. 그러나 레알 마드리드는 2-0으로 앞서던 뮌헨의 세 번째 키커 토니 크로스가 골을 넣지 못한 사이 사비 알론소가 골을 넣어 2-1을 만들었다. 4번 키커 필립 랍까지 승부차기를 실축한 뮌헨은 위기에 빠지는 듯했다. 하지만 레알의 세르히오 라모스가 찬 공이 골대 위를 완전히 넘기면서 승기는 뮌헨 쪽으로 흘렀다. 마지막 키커로 나선 슈바인슈타이거가 침착하게 골을 넣으면서 뮌헨은 120여 분간의 대접전에 종지부를 찍었다. /연합뉴스



26일(이하 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레알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뮌헨의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 승부차기 접전 끝에 극적으로 승리한 뮌헨의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내골프연습장

SKY 골프 Club 연습장

최첨단 스윙분석기·타석스크린 전타석 설치!!
 방향, 비거리, 스윙동영상을 동시에!!



- 드라이빙레인지 모드
- 스윙분석
- 훈련모드(퍼팅, 어프로치 연습)
- PAR3 게임모드
- 스트로크 게임모드

새벽반(6:00) 환영

연습장 이용시간

평일	06:00 ~ 23:00
토요일	10:00 ~ 22:00
일요일·공휴일	12:00 ~ 20:00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 쉽니다.	

